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고순제 전도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한복음 21:15-19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찬송 532장 / 주께로 한 걸음씩 <small>(통일찬송기 323장)</small>
헌신과 나눔	봉 헌 / 박진성 집사, 최선윤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섰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하십시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구 민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13:11-16
하나님의 주권

8. 함께 기뻐하기.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전 3:13). 신앙 안에서 즐기며 기쁨을 취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경건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것도 사랑의 좋은 실천이다.

9. 진실 고백하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5). 사랑 안에서 참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랑의 실천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현명한 조인을 구하며, 함께 회개하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귀한 모습이다.

10.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모든 죄로부터 멀어지고 불의를 거부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문화 선교 연구원]

목상에세이

"그가 우리를..." (골 1:13-2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은 복되고 기쁜 소식, 굿 뉴스라는 뜻입니다. 나의 영혼을 그 다른 무엇 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영생을 위하여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한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와 장난감들 중에 큰 인기를 차지했던 것 중 만화와 영화 캐릭터인 트랜스포머 (Transformer)가 있었습니다. 땅에 다니는 자동차가 되었다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멋진 비행체로 변신하는 로봇. 복음에도 이와같은 변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Transforming Power! (트랜스포밍 파워!) 이 변화의 힘으로 우리는 좀처럼 세상에 끌려 살던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모진 삶을 살던 우리는 더 이상 흠으로 돌아갈 것만 바라며 살지 않게 됐고,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하는 변화의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변화의 찬란한 힘은 허무하고 영원하지 못해 한계가 있던 우리의 인생을 영원하고 영광된 삶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는 변화의 힘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한 순간 우리는 복음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나의 존재의 허무함을 진정 발견한 사람은 이 복음의 주인이신 분을 찾을 것 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누구로부터 온 복된 소식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와 물로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복음입니다. 한 생명의 희생으로 무수한 생명을 구해내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할 말이 없는 진리입니다. 다시 주님의 죽으심 앞에 선 나는 오늘도 변화의 힘에 순종합니다.

- 장영현 전도사 -

환 주간의 기도

"교회의 덕을 위해 나를 내려 놓는 훈련을 받게 하소서. 특히, 5 월에 있는 선교/찬양집회와 여성 회복세미나의 준비 과정을 통해 영적 참체를 이기는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종렬 목사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그는 넘어지거나 아주 엉드러지지 아니함은 음모와 계서 그의 손으로 받들심이라." (시편 37 편 24 절)

교회와 사역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실천하는 10 가지 방법

교회와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교회를 꿈꾼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라고 말하며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고 자매라고 말씀하셨다. 한 가족인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1.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형제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살전 5:25)는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이다. 습관적으로 '기도할게요'라고 말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진심어린 마음과 태도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형제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이다.

2. 잘 모이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 개인주의와 다원주의는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며 봉사하는 교제 중심의 문화를 위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를 섬기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사랑의 실천이 없을 것이다.

3. '서로' 안에 살아가기.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체 하지 말라"(롬 12:16). "'서로' 문안하라", "'서로' 평안하라", "'서로'를 위해 선을 추구하라" 등 성경에서 "서로"라는 단어는 90 번 가까이 사용된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공동체에서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타자를 위한 삶은 곧 자신을 위한 삶이기도 하다.

4. 봉사하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전 4:9). 교회를 섬기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 둘 다 의미한다. 큰 그룹을 위한 사역일수도 있고 작은 그룹의 사역일 수도 있다. 주일학교 교사와 차량봉사를 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경제적, 사회적 섬김을 제공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일 것이다.

5. 서로 존경하며 칭찬하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롬 12:10).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은 인정과 칭찬이다. 서로를 깎아내리는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 구성원은 서로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새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로 서로를 격려하면 좋을 것이다. 잘 한 일이나 특별한 섬김의 봉사 믿음, 안에서의 삶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6. 격려하기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살전 5:11).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것도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의 한 모습일 것이다. 한 통화의 전화나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는 어려운 삶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7. 끝까지 용서하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골 3:13).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실천으로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갈등이 없으수는 없지만 그 갈등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됨을 추구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면 교회의 사랑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4월은 부활의 믿음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소망의 달"
5월은 애도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천국의 행복을 이웃과 나누는 "가정의 달"

1. 오늘은 **선교주일**이며 금주는 **선교주간**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 팀사역 세미나가 12주과정으로 계속됩니다. (인도: 김윤경 사모)
3. **WOW 모임**이 토요일 오전 11:00에 있습니다.
4.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 선교사 목사 부부 초청 **선교/찬양집회와 여성 회복 세미나(5/17-19)** 준비를 위해 협력해 주십시오.
6. 유초등부 교육전도사/교사 청빙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7. 교우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8. 춘계심방 계획이 마무리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교우 동정 : 김신실 (자녀 방문, 해외 여행 중)

♥생일 축하♥ 고순제(4/14), 장영현(4/16)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축복된 교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건강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경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치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 섬김 이	주일예배기도	4/28	5/5	5/12	5/19
		고순제전도사	오정은집사	최내권집사	구은강집사
주일예배기도	금요일예배기도	5/3	5/10	5/17	5/24
		구민집사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박진성집사
주일헌금위원	주일헌금위원	4/28	5/5	5/12	5/19
		박진성집사/최순윤집사	유덕하집사/구은강집사		
주일안내위원	주일안내위원	4월	5월		
		최내권집사	구민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말 말씀요약)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중인 / 요한복음 20:1-10, 17-18**

그 어떤 희생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랑으로 무덤을 찾아가던 여인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전했다. 향품을 준비하는 내내, 무덤으로 향하는 내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던 걱정거리는 무덤을 막아놓은 커다란 돌이었다. 그러나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커다란 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 부활을 믿도록 초청하는 증거, 부활의 증인으로 초청하는 증거가 되었다.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으며 신앙생활의 진보를 방해하여 믿음을 잃고 의심하게 만드는 무거운 돌이 있다면,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증거하는 기회로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 요한복음 21:15-19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갔다.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153 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조반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셨다.

첫째, 세상이나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둘째, 예수님만을 사랑하느냐?

셋째, 상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사역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은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 요한복음 21:15-19

예수님의 부활 후,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려 호수로 나왔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날이 새도록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호숫가로 오셔서, 제자들을 위하여 불을 피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자 물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을 들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보다 주변 사람들을 우선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보다 세상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 더 나아가 예수님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질문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에는 비교의 대상이 없습니다. 이는 다른 무엇과의 비교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일대일의 관계, 절대적 관계에서도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처음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시자 베드로에게 근심이 났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 반복하여 부인하였던 그 밤을 기억하였을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분명하지만, 자신이 한 소행이 있기에 그저 속만 태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세 번 반복하여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사역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지 않은 행위는 그저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거듭 확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세 번 반복되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 답하는 과정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완전히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남긴 상처에서도 치유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까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리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여 죄책감과 또 다른 실패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살아야 했을 겁니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심한 우리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승리해야겠습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도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April 28,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2019년 4월 28일

5-17호

소망의 달

선교주일 /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뿐입니다 ♡